

한국노총, '광주형 일자리' 협약 파기

“노동이사제 등 핵심사안 미수용”...노사 상생 위기 시 “완성차공장 역량 집중하며 일자리 생태계 조성”

광주형일자리 첫 사업인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광주글로벌모터스 사업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역노동계가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협약 파기를 선언, 노사상생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데

다른 것이다.

광주시는 노동계 등과 소통하며 완성차 공장 역량을 집중하면서 일자리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5일 광주시와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한노총 광주본부는 지난 12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광주시노사민정협의 회가 결의한 광주형일자리 투자유치 협약서를 파기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조만간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광주형일자리 파기 선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선언식은 당초 오는 17일로 예정됐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이르면 오는 31일께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노동계의 협약 파기는 이미 예견됐었다. 노동계는 지난해 9월 ▲노동이사

제 도입 ▲원·하청 관계 개선 시스템 구축 ▲임원임금 노동자 두 배 이내 책정 ▲시민자문위원회 설치 등 5개 요구안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광주시노사민정협의에 불참하는 등 강력 반발해왔다.

노동계는 광주형일자리 본래 취지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대주주인 현대자동차 이익만을 대변하면서 훼손됐고, 노동이사제 등 노동계가 참여할 수 있는 장구가 막혀 있다고 주장했다.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은 “5개 요구안 중 시민자문위원회 설치와 현대차 이사추천에 대해서는 양보했지만, 핵심사안은 수용되지 않고 있다”며 “더이상 노사상생형 광주형일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13일 오후 순천시 매곡동 순천의료원 앞에서 시민들이 코로나 19 경증환자들이 탄 버스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경증환자 30명은 순천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연협뉴스

신인 패기나 중진 현역 관록이냐

4·15총선 D-30 텃밭 회복·수성 ‘맞대결’...민주 공천잡음속 야권 ‘인물론’

4·15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와 전남지역 각 선거구 여야간 대진표가 확정되고 있다. 이 지역 올해 총선은 텃밭을 두고 고토를 회복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수성에 나선 현역의원 중심의 야당간 맞대결이 예상된다.

15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올해 총선은 광주·전남의 경우 신인의 패기나, 중진 현역의 관록이냐를 판가름하는 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목되는 부분은 민주당의 경우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텃밭을 탈환할 수 있을지 여부, 중진의원들이 다수 포진한 민생당은 조직력과 지지기반을 통한 지역구 지키기다.

실제 광주에서는 동남갑의 경우 윤영덕 후보와 장병완 후보간 치열한 경쟁이, 서구를 양향자-전정배, 북구갑 조오섭-김경진 등 후보간 양보할 수 없는 한 판 승부가 펼쳐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으로 잡음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지지세 관리에 공을 들였

다.

하지만 경선 과정에서 스스로 원칙을 무너뜨리며 혼란을 자초, 공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경선결과에 불복해 재심신청이 잇따른 데다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면서 상호 비방이 극심해지는 등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경선 막판 선거구 확정을 통해 순천에 전략공천을 하면서 지역반발을 불러일으킨 점도 민주당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호남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다시 합쳐진 민생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인물론’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정치적 경험이 부족한 민주당 후보와 비교해 호남정치를 대표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민주당과 경쟁할 수 있는 정치세력을 만들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최순실·전두환 ‘저격수’로 유명세를 떨친 노승일·인한솔씨를 인재로 영입하며 ‘민주개혁 세력’으로의 존재감을 키울과 동시에 경선 혼란을 겪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 ‘오만한 민주당’ 프레임으로 민심을 파고들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깜깜이 선거’와 선거법 개정 등은 올해 총선의 최대 변수다.

▶2면으로 이어짐 /황애란 기자

알립니다

전남매일 '제31기 독자권익위' 구성 다양한 의견 반영 알찬 지면제작 보답

전남매일이 '제 31기 독자권익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전남매일은 교수·변호사·기업인·정치인·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13명으로 구성된 제 31기 독자권익위원회를 통해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제작에 반영, 보다 알찬 지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독자권익위원들은 본보 보도 내용에 대한 비판과 제언, 아이디어 제공 등 전남매일이 지역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매체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독자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기대합니다.

(명단 가나다순)

김미경 대표이사 광주여성가족재단	김용집 광주시의원	박강희 변호사	박미정 광주시의원
박상철 광주지방조달청장	박찬갑 대표 세진엔지니어링	이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모숙 사무처장 광주문화재단
이정 본부장 한국은행 광주전남	전갑수 회장 광주시배구협회	정지운 광주YWCA 회장	정찬권 신우신협 이사장
조정만 처장 전남도체육회			

M 전남매일

감추어도 느껴지는 대한민국 미소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는 대한민국 미소의 힘은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바른 소통의 자세로 나보다 남을 위해 따뜻한 미소를 지닌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코로나19 예방하기!!

- ① 함께있는 자리엔 마스크 꼭꼭! 해요.
- ② 손은 30초 이상, 자주 씻어주세요.
- ③ 기침이 나오면 옷소매로 가려야 해요.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